



비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쉽고 재미있는 가사와 흥겨운 리듬, 과속 3대가 보여주는 재미있는 표정연기로 올 여름 국민들에게 시원한 웃음을 주는 광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지펠 스타일리쉬한 새광고 눈길



삼성전자 지펠의 새광고 스타일 편에서 전속모델 윤은혜가 스타일 마법사로 변신, 스타일 사는 주방을 공개했다. 지펠 스타일' 편은 핑크빛의 사랑스럽고 세련된 스타일로 집안을 화사하게 만드는 지펠의 디자인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지펠 퍼니처스타일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내레이션으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러블리한 디자인의 지펠은 가전의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사] LBest 대표이사 박순용씨 선임



GIR(지부알)은 계열사인 LBest(엘베스트) 대표이사제 박순용 HS에드 부사장을 선임했다. 박순용 대표이사는 1982년 LG에드(현 HS에드)에 입사한 이래 28년간 줄곧 광고업에 몸담아 오면서, 마케팅 플래닝의 과학화와 브랜드 컨설팅 모델의 선도적 활용으로 회사 성장을 이

끌어 온 전문 광고인이다.

2009 부산국제광고제, 8월 27일 부산 해운대서 개막



세계최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컨퍼런스(융합) 광고제인 2009 부산국제광고제(AD STARS 2009)가 오는 8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3일간 해운대 그랜드호텔과 해운대 백사장 일대에서 개최돼 영상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개, 폐막식과 시상식, 전시행사와 별도로 한·미·일 공익광고역사관, 기존 국제광고제 수상작 전시·상영관, 유명 광고모델·캐릭터·감독·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의 만남 등 참관객 및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기획, 일반 참관객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2009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는 올해 제품/서비스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데이비드 게레로 BBDO 아시아·태평양 지역 광고 제작 총 책임자를, 공익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토비 벨버트 DOB 뉴질랜드 광고제작 총 책임자를 각각 위촉, 무분체계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국제광고제는 제품/서비스 부문과 공익 부문에 각각 그랑프리를 수여하고 있으며 상금은 각 미화 10,000 달러이다.

광고제 출품은 전세계의 광고인이나 광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대학생 누구나 가능하며 출품사이트(www.adstarsfestival.org)를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출품비는 무료이다.

출품문의 : 부산국제광고제 사무국(☎ 051-623-5539), <http://www.busanadstars.org>